

다니엘의 책 - 번호 152

에스겔의 두 막대기의 상징: 예언과 구속을 통한 여정

Jeff Pippenger

2024-03-22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예언의 선을 고찰하고 있는데, 그 선은 먼저 일곱째 나팔의 울림과 라오디게아를 향한 기별을 지목하며, 그것이 십사만 사천의 군대를 일으킨다고 밝힌다. 이어 에스겔은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막대기가 하나로 결합되는 일을 도입함으로써 그 선을 반복하고 확장하는데, 이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때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과정을 예증한다.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연합되면, 에스겔은 그들 위에 한 왕이 있을 것을 지적하고, 이어 그는 영원한 언약, 곧 십사만 사천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언약을 논하면서, 마지막 날의 그 언약 백성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그 선에 1844년에 요한이 성전을 측량한 사역을 더하여, 이로써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최종 측량을 예표하게 하였다. 그 측량에 대하여는 스가랴도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읍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때에 그 측량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전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막대기 사이에 비유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십사만 사천의 인성과 연합시키시는 사역은, 북왕국과 남왕국에 임한 흠어짐의 2,520년 두 예언 속에, 2,300년 예언과 결부되어, 표상된다.

에스겔의 막대기가 복음의 사역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식별하려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그분에게 전해진, 사천 년에 걸쳐 유전되어 온 연약함을 지닌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받아들이셨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그분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켜 의지를 행사할 때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우리의 의지는 선을 위해서든 악을 위해서든 영혼의 요새인 우리의 뇌에서 작용한다.

두 학기의 일을 한 학기에 몰아넣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이 문제에 관해 자기 뜻대로 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두 배의 일을 해내겠다고 나서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정신의 과도한 혹사와 적절한 신체 운동의 소홀을 의미한다. 정신이 과다한 정신적 양식을 받아들이고 소화해 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위에 휴식할 여유를 주지 않은 채 소화 기관을 짓누르는 것이 죄이듯, 정신을 과식시키는 것도 그만큼 큰 죄이다. 뇌는 인간 전체의 중추이며, 잘못된 식사, 복장, 수면 습관은 뇌에 영향을 미쳐 학생이 바라는 바, 곧 훌륭한 정신적 훈련의 성취를 가로막는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적절히 돌보지 않으면, 그 손상이 전보를 치듯 두뇌에 전달된다. 청년들에게 건강을 보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많은 인내와 끈기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들이 이 문제를 잘 숙지하여, 모든 근육과 기관이 강화되고 훈련되어 자의적이든 불수의적이든 작용할 때 최상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학업의 부담을 견딜 수 있도록 두뇌가 활력을 얻게 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 124쪽.

영원한 언약의 사역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우리 영혼의 성채"인 뇌에 자리하고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마음이 순결과 거룩함에서 타락과 부패와 범죄로 단번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신성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짐승적이거나 사탄적인 상태로 떨어뜨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지라도, 한때 혐오하던 죄가 그에게 즐겁게 느껴지도록 자기 마음을 그렇게 교육할 수 있다. 그가 깨어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는 요새,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을 멈추고 죄와 범죄에 가담한다. 마음은 타락해지며, 도덕적·지적 능력을 노예화하여 더 거친 정욕의 지배 아래 복종시키도록 교육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을 부패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육신의 생각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유지해야 하며, 마음을 위로 끌어올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습관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화하는 영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Adventist Home, 330.

"마음", "심장", "뇌"는 "영혼의 성채"다. 성채는 죄의 침입을 막아 지켜야 하는 요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마음과 영혼에 새겨야 할 교훈을 세상에 주셨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이것이 참된 교육이다. 그것은 능력을 부여한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어, 낮은 본성의 모든 충동과 열정을 정신의 더 높은 능력의 통제 아래 두게 한다. 그것은 그 소유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것은 그를 무한하신 분의 마음과 교통하게 하며, 우주의 품성한 보화를 그에게 열어 준다."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 114.

"더 높은 능력"은 "낮은 본성의 충동과 정욕"을 제어하고 복종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더 높은 능력은 마음에 자리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한하신 분의 마음과의 교통"이다.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한 부류에는 짐승의 형상이, 다른 부류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된다. 이 변화를 이루는 것은 마음의 연합이다. 바울의 표현대로 육신적, 곧 육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육의 형상, 곧 짐승의 형상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른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우리는 모두 육신의 마음으로 태어났지만, 회심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언약의 약속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5-8.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안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 아래 팔려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약하여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죄 때문에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로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입니다. 로마서 8:1-10.

영에 속한 것은 생명이고, 육에 속한 것은 죽음이다. 육은 낮은 본성이며, 우리의 감정의 근원이다. 육적인 낮은 본성은 더 높은 본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는 성령께 복종하여 우리의 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의 더 높은 육신의 생각은 지금 여기서 변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낮은 본성은 변화되려면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에스겔의 두 막대기는 뿔로 상징되는 한 막대기를 가리키며, 그 막대기는 1798년에 그 결말에 이르렀다. 그것은 이교가 군대를 짓밟은 1,260년과 교황권이 군대를 짓밟은 1,260년으로 정확히 나뉘어 있었다.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남왕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교와 교황권에 의해 짓밟힌 그 군대는 사람으로 된 성전이었지만, 남왕국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몸이었고,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두시기로 선택하신 곳이었다. 북왕국은 몸이었고, 남왕국은 머리였다.

북왕국의 각 1,260년의 두 구분은 신체라는 성전 안에서 죄로 향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 곧 유전된 경향과 양성된 경향을 표상하였다. 이교는 신체라는 성전 안에서의 죄의 유전된 경향의 상징이었고, 교황권이 이교의 종교를 채택한 것은 죄에 대한 양성된 경향을 나타낸다. 어느 경우이든 신체라는 성전은 재림 때까지 변화될 수 없었으므로, 북왕국의 막대기는 1798년까지만 연장되었고,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막대기는 제외되어야 했다.

"conversion"이라는 단어는 한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상태나 조건으로의 변형 또는 변화를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본래의 상태에서 "전환"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위의 힘이 하위의 힘을 통제하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위의 힘이 상위의 힘을 압도하여 우위를 차지하는 존재로 "전환"되었다. 그들은 그 상태를 모든 후손에게 전해 주었다.

에스겔의 두 막대기에 관한 예언적 묘사에서,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머리, 곧 왕이 거하는 수도로 택하셨다. 그것이 더 높은 권세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두 막대기의 비유에서 남왕국은 북쪽의 더 높은 왕국에 비해 낮은 권세였다. 두 막대기가 합쳐질 때 표상되는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남왕국이 머리로서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남왕국은 참된 북방의

왕과 연합되고 참된 북왕국의 왕좌실과 연결되었으므로, 북왕국으로 돌이켜져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북왕국은 1798년까지만 이르렀고, 요한은 1798년까지만 이르던 틀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남왕국은 셋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2,300년의 막대기에 연결될 것이었지만, 요한이 그때 측량한 성전의 두 칸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성취됨에 따라 북왕국은 끝나게 될 것이었다. 북왕국은 셋째 천사가 도래할 때 남왕국과 46이라는 연결 고리로 이어졌지만, 남왕국과 달리 1844년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남왕국은 사십육 년의 성전과, 이백이십 년으로 표상된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연관되어 있었다. 북왕국은 1798년에 사십육 년의 성전의 기초를 표시하였으나, 거기에서 그쳤다. 이는 그 기초가 곧 그리스도께서 친히 취하신 육체를 표상하였기 때문이며, 그의 육체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성전은 서로 대체 가능한 표상들이며, 1798년의 그 사십육 년의 기초는 그의 인성을 가리키고, 그 사십육 년의 결론인 1844년은 그의 신성을 가리킨다.

1798년까지 짓밟혔던 그 무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그 짓밟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소와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남왕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짓밟혔던 그 무리는 이방인들을 가리켰으며, 곧 몸을 가리켰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에 의해 인류가 짓밟히는 칠천 년의 '일곱 때'가 시작되었다. 그때 세상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인류의 죄로 인한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 양 가죽을 입혀 주셨다. 1798년에 인류가 짓밟히는 일이 끝났을 때, 모든 성별된 성전의 표상의 기초이자 건설자이신 어린양이 다시 죽임을 당하셨다. 그곳에서 북왕국과 그 안에서 표상되던 인간 성전이 끝났다.

1798년은 가짜 적그리스도가 예언적 3년 반에 걸친 사탄적인 증언을 마친 뒤 죽임을 당한 해였다. 그 3년 반은 538년에 그가 권세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에 앞서 508년부터 시작된 3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시작되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권능을 받으셨을 때 끝난 30년의 준비를 사탄적으로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그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에 이르기까지 문자적 3년 반 동안 증언하셨다. 그때 '성전을 혈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키리라'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일으키신 분이셨다. 이는 부활을 이루게 한 것이 그분의 신성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며, 그분의 신성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분의 인성이었으니,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11:25).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니,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라'(요한복음 10:17)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그분 자신 안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았다. 그분은 신성으로 죽음의 결박을 깨뜨릴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자신 안에 생명이 있어 원하시는 자를 살리신다고 선언하신다. Selected Messages, book 1, 301.

1798년에 "북왕국"의 담지자인 인간의 성전은 끝을 맺었다. 낮은 본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재림 때의 부활까지는 변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변화될 수

있는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던 사십육 년의 기초를 밝혀 주었다. 그 성전은 "남왕국"으로 대표되며, 마음의 더 높은 능력의 상징으로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변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터 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성경은 교회의 세움을 설명하기 위해 성전 건축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스가라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가지'로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그는 이방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돕는다고 말한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또 이사야는 선언한다. '타국인의 자손들이 네 성벽을 쌓으리라.' 스가랴 6:12, 15; 이사야 60:10.

"이 성전의 건축에 관하여 기록하며, 베드로는 말한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에게 나아오면, 너희도 또한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된다.' 베드로전서 2:4, 5."

유대인과 이방인의 세계라는 채석장에서 사도들은 수고하여, 기초 위에 놓기 위한 돌들을 캐어 내었다.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신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서로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에베소서 2:19-22.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내가 터를 놓았고, 그 위에 다른 이가 세운다.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는지 조심하라. 이미 놓인 터,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 이제 누구든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면, 각 사람의 일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니, 그것이 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10-13.

사도들은 확고한 기초, 곧 만세의 반석 위에 세웠다. 이 기초를 위해 그들은 세상에서 캐낸 돌들을 가져왔다. 건축자들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반대 때문에 지극히 어려워졌다. 그들은 거짓된 기초 위에 세우고 있던 자들의 편협함과 편견과 증오에 맞서 싸워야 했다. 교회의 건축자로 일하던 많은 이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자들과 비길 수 있었는데, 그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벽을 쌓는 자들과 짐을 지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은 모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더라.' 느헤미야 4:17. 사도들의 행적, 595, 596.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인류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죄의 저주로 황폐해졌고, 고통과 죽음을 면치 못할 존재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멈추었다. 하늘 궁정 곳곳에는 죄가 초래한 파멸을 애도하는 슬픔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휘관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상의 비통함이 그 앞에 떠오르자, 그의 마음은 무한한 자비로 깊이 움직였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은 사람이 구속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겨졌으므로 그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그 요구를 사람을 대신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었다. 신성한 율법이 하나님 자신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위반에 대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뿐이었다. 그리스도 외에는 타락한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그를 다시 하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죄책과 수치를 친히 짊어지실 것이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아야만 하는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는 몰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실 것이었다.

아버지 앞에서 그분은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셨고, 하늘의 무리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관심으로 그 결과를 기다렸다. 그 신비한 교통,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한 '화평의 의논'(스가랴 6:13)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구원의 계획은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세워졌으니, 그리스도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요한계시록 13:8)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어 죽게 하시는 것은 우주의 왕에게조차 힘겨운 씨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오, 구속의 신비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끝없는 영원 속에서, 불멸의 지성들은 그 불가해한 사랑의 신비를 이해하려 애쓰며 경이로워하고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실 것이었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고린도후서 5:19). 사람은 죄로 인해 너무 타락하여, 스스로는 본성이 순결과 선하심하신 그분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후,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신성한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들'(요한일서 3:2)이 될 수 있었다."
죽장들과 선지자들, 63, 64.